

조선대 구조조정 회오리 ▶8

시멘트 가격 또 오른다고? ▶10

장흥 별미 여행 ▶13

3·1절 마라톤 코스 안내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414호 1판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음력 12월 20일)

나로호 발사 성공... 마침내 하늘문 열다



2013.1.30.16:00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30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이날 오후 4시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가 수중기와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우주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과학위성, 노르웨이 지상국과 교신 성공
한국 세계 11번째 '스페이스 클럽' 가입

관련기사 2·3·4·5·6면

우주를 향한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 30일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정상궤도에 나로과학위성을 올려놓았다. 우주 강국에 비해 40여년 뒤에 있는 한국이 우주에 첫 발을 내딛으며, 자력으로 개발한 로켓을 자국 발사대에서 쏘아올린 이름바 '스페이스 클럽'에도 11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나로호 발사 1시간 후인 오후 5시 '나로호가 정상궤도에 진입했고, 노르웨이와 첫 교신도 이뤄지는 등 전체적인 발사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로과학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31일 새벽에야 확인할 수 있다.

나로호는 이날 오후 4시 이륙한 뒤 발사 54초만에 음속을 돌파했고 215초 뒤 예정대로 위성덮개(페어링)를 분리했다. 또 232초 뒤 1단(하단) 로

켓이 떨어져 나간 데 이어 395초에는 2단(상단) 고체연료가 접함돼 그 주 진력으로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이어 1시간여 흐른 뒤, 나로위성이 보내오는 비온 신호를 노르웨이 수신국에서 탐지하는 데 성공해 나로위성이 목표 궤도에 진입해 정상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금까지 포착된 신호를 분석한 결과 우주발사체로서 나로호는 위성을 목표 궤도에 목표 속도(초속 8 km)로 정확히 놀려놓았다는 의미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에서 "각종 분석 결과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면서 "한국형 우주발사체를 독자개발 해 오는 2020년 우리 기술로 우주에 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새벽 3~4시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가 나로위성과의 교신에 성공하면 나로호

계획은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나로호 발사 성공을 염원했던 고흥군민 등 지역민들의 감격도 커졌다. 지역민들은 나로호 발사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성장하고, 고흥이 우주산업의 메카로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술 발달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로호 발사 성공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힘을 빙자 나로호와는 달리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KSLV-II)의 발사 시점을 당초 2021년에서 2~3년 앞당기겠다는 '우주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이 국내 우주 산업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셈이다. 나로과학위성은 지상 300~1500km 범위를 탐지궤도로 둘러 우주환경 관측 임무를 1년동안 수행하게 된다.
/고흥=오광록·박정렬기자 kroh@

수치여사 “광주 찾게 돼 영광”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이자 2004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68) 여사가 30일 오후 광주공항을 통해 광주를 찾았다.

전세기로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회원들과 함께 광주에 도착한 수치 여사는 미얀나운 5·18기념재단과 광주시 관계자, 시·도민 등 200여명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수치 여사는 광주 방문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름다운 광주를 방문하게 돼 영광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수치 여사는 또 "어머니 수치 여사 건강하세요?"를 연호하는 미얀마인 20여명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격려했다.

수치 여사는 1박2일의 광주 방문기간 동안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기

념식수를 하고 강운태 시장을 면담한다.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환영오찬에 참석해 명예광주시민증과 2004년 광주인권상 수상 당시 받지 못했던 상장 및 메달을 전달 받은 후 9년만에 수상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신 대 학 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모집
원서 접수마감
2월 6일(수)

입학 062-605-1112
문의 062-605-1023



30일 밤 전세기로 광주공항에 도착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시민과 미얀마인 200여명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Welcome to Kwangju, Aung San Suu Kyi.
The citizens of Kwangju endorse
the Myanmar's Democratization.

아웅산 수치여사의
광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광주시민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BODY &
BALANCE 청연한방병원

“축” 나로호 발사 성공

